

보도자료 (총4쪽)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4가 196-11 2층 Tel. (02)796-2278 / Fax (02)796-7021 문의 : 이상현 사무국장 010-6247-0419	2014. 12. 21(일)
----------------------	--	----------------------------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반대 청소년. 청소년단체 긴급 기자회견]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은 민주주의 사망선고 “대통령님, 다음은 누구입니까?”

- 일시 : 2014년 12월 21일(일) 오후 1시
- 장소 : 덕수궁 대한문 앞
- 주최 :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광주지부,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광주 청소년모임, 중고생연대, 청소년문화예술센터,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푸른꿈 학생연대

1. 지난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 해산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소년들, 청소년단체는 한국사회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인식하며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2. 2014년 12월 21일 일요일 오후 1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은 위의 7개 단체와 청소년들이 함께 준비하고 참여했습니다.
3. 기자회견은 청소년 및 청소년 활동가의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구호제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4.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준영 활동가는 “고등법원에서도 통합진보당, 이석기 씨 내란음모 관련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논리적인 비약이 심하다”며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이 폭탄테러 한 사람, 종북딱지 붙여가면서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면죄부를 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5.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최서현 활동가는 “박근혜 대통령님,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하셨죠?”라고 말하며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은 사상의 자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는 박정희, 전두환 독재를 거쳐오며 생각과 사상으로 인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겪어왔다”며 “지금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있다”고 발언하며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6. 고등학교 3학년 류홍석 학생은 “저는 이곳에 보이지 않는 족쇄를 막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서 있다”라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입김이 반영된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이번에도 이렇게 지나가면 같은 잘못을 계속 되풀이할 것이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피땀으로 만들어 낸 민주주의, 청소년이 지켜내자!”, “민주주의 죽이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한다!”, “우리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민주사회를 요구한다!”라고 함께 구호를 외쳤습니다.
8. 기자회견의 사회를 진행한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이상현 사무국장은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 청소년단체들의 힘을 모아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활동방향을 이야기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습니다.
9.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은 민주주의 사망선고 “대통령님, 다음은 누구입니까?”

지난 12월 19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받아들여 19일 강제해산을 선고했다.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자기본분을 잊

고 위헌적 판결을 한 것이다. 정당해산 판결의 근거인 헌법 제8조 4항 위헌정당 해산 심판제도는 과거 이승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보당을 해산한 경험속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는 권력을 쥔 세력이 함부로 정당을 해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소수정당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스스로도 판결의 기준을 이야기하며 정당해산심판은 그만큼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말 뿐, 결과는 참담했다. 87년 6.10 민주항쟁의 결과물로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이제는 권력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었다. 아니,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한국사회 민주주의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다. 참교육과 교육민주화에 앞장섰던 전교조는 범외노조가 되었다.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조작으로 만들어냈고, 내란음모와 RO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내란음모는 무죄가 됐고, RO는 없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반면 국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국정원 및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은 적절한 선에서 꼬리자르기로 문혔다. 세월호 참사에서는 구조과정에서의 무능을 보여준 것 뿐 아니라 유가족이 목숨을 걸고 요구하는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간신히 만들어진 특별법은 시작부터 뼈격대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공약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은 찬바람을 맞으며 목숨 걸고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온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던 카카오톡 메신저는 정권이 편리하게 사찰할 수 있는 도구로 변했다.

이것이 21세기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판결은 후퇴를 거듭하며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 민주주의에 사망선고를 한 것과 같은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없앤 것은 통합진보당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할 것이라 믿었던 헌법재판소 자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없앤 것이고, 최소한의 민주주의는 지켜질 것이라는 국민적 믿음을 짓밟은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수사로서 독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재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판결이다.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이다. 정치적으로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권력을 가진 자에게 비판적이라고 해서 정당을 해산하고 탄압하는 것은 다원성과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파시즘과 같은 것이다.

지난 2년 간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비판적 입장을 가지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자신들과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 자신들에게 비판적 입장을 가진 정당을 마음대로 해산했다면, 어떤 단체든

어떤 개인이든 탄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탄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국민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으로 일구어낸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순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지금 가만히 있는다면 다음 차례, 그 다음 차례 계속해서 비판세력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고, 한국사회는 독재사회가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잘못됐다는 것, 한국사회 민주주의는 위기라는 것, 권력에 의해 누구든 탄압받을 수 있고,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나설 것임을 밝힌다. 청소년들은 역사 속에서 불의를 보고 물러서지 않았으며, 오늘날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더 큰 힘을 모아 나설 것이다.

2014년 12월 21일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반대 청소년, 청소년단체 긴급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광주지부,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광주 청소년모임, 중고생연대, 청소년문화예술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푸른꿈 학생연대, 민주주의 수호에 나서는 청소년들)